202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열)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문항 1·문항 2 각 50분 권장).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4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점은 문항별 9등급 판정으로 합니다.
   문항 1-1 (300±30자) 문항 1-2 (600±60자) 문항 2-1 (300±30자) 문항 2-2 (600±60자)
3.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칸에 작성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숙명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열)의 출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네 문항을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항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훌륭한 말과 가르침은 타고난 성품이 너그러운 젊은이들을 북돋아 덕으로 이끌 수는 있어도, 대다수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기에는 힘이 없다. 대다수 사람들은 본성상 수치심이 아니라 두려움에 따르며, 비천한 일을 삼가는 것도 그 일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처벌 때문이다. 그들은 감정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쾌락과 그것을 얻는 수단을 좇고 그 반대의 고통을 피할 뿐, 고귀하고 참으로 즐거운 것은 맛본 적이 없어 알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말로 바꾸어 놓기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감정은 이성에 굴복하지 않고 힘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절제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즐겁지 않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덕을 향한 올바른 인도를 받으려면 그런 삶을 명하는 법 아래에서 자라야 하며, 음식과 생활 방식 전반이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 습관이 되고 나면 괴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것을 계속 실천하고 익혀야 하므로, 우리에게는 삶 전체에 걸친 법이 필요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성보다 강제에, 명예심보다 처벌에 따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명령에는 강제하는 힘이 없지만 법은 강제하는 힘을 지니며, 법은 실천적 지혜와 지성에서 나온 규칙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충동을 가로막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올바른 것을 명하는 법은 미움을 받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자는 잘 길러지고 좋은 습관을 들인 뒤, 좋은 제도 아래에서 살며 비천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든 법이 공통으로 지니는, 또는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무엇보다 먼저 그 행복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해악을 될 수 있는 대로 막아야 한다. 그런데 모든 처벌은 해악이다.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처벌은 허용되더라도 오직 그보다 더 큰 악을 막아 줄 것이 기대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첫째,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경우, 곧 막아야 할 해악이 없어서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해롭지 않은 경우이다. 어떤 행위가 때에 따라 해롭거나 불쾌할 수 있더라도, 그 행위에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가 자유롭고 정당하게 동의했다면, 이는 적어도 그 당사자에게는 해악이 생기지 않았다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무엇이 자기에게 쾌락을 주고 무엇이 고통을 주는지는 그 사람 자신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처벌이 효과를 낼 수 없는 경우, 곧 처벌 규정이 행위가 있은 뒤에야 만들어졌거나, 그 규정이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더라도 당사자의 행동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 처벌이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곧 처벌이 만들어 내는 해악이 처벌로 막는 해악보다 큰 경우이다. 처벌의 해악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하지 못하는 고통, 법을 어긴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고통,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겪는 고통,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 겪는 고통이 모두 들어간다. 위반자가 한꺼번에 많아지면 이 해악은 보통의 정도를 넘어 커진다. 넷째, 처벌이 필요 없는 경우, 곧 처벌 없이도 더 적은 대가로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경우이다. 위협으로 의지를 누르는 대신 가르침으로 이해를 일깨워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처벌은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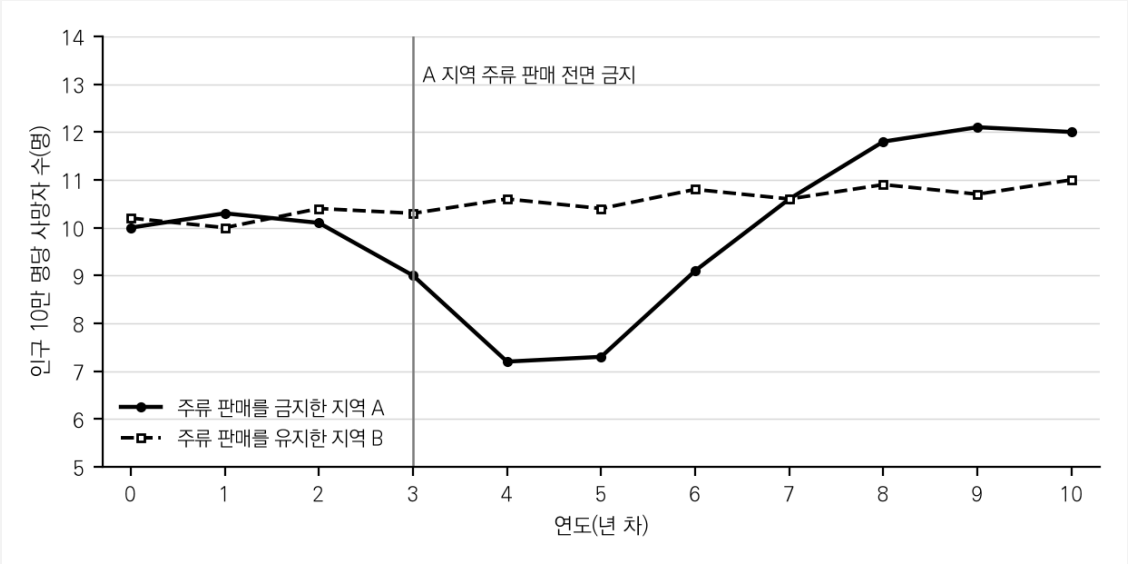
〈다〉 인류가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그 구성원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보호이다. 문명사회의 구성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 사람 자신의 이익은,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좋다거나, 그를 더 행복하게 한다거나,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다는 이유로 그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는 그를 타이르거나 설득하거나 간청할 좋은 이유는 되지만, 그를 강제하거나 따르지 않는다고 벌을 줄 이유는 되지 못한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부분에서 개인의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곧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권자이다.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에 공중이 간섭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그런 간섭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곳에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 다수의 의견이 법이 되어 소수에게 강요될 때, 그 의견은 기껏해야 무엇이 남에게 좋고 나쁜지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다.

그렇다고 술에 취한 사람이 남에게 끼치는 해악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경우 술에 취하는 것은 입법이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법적 제한을 두어 이후 취한 채 발견되면 벌을 받게 하고, 그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 술에 취하면 남을 해치게 되는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술을 얻기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금지와 정도만 다를 뿐이며, 전면 금지가 정당할 때에만 정당하다. 값이 오를 때마다 그 값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금지가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특정한 취향을 즐긴 데 대한 벌이 된다. 국가와 타인에 대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다한 뒤에 어떤 즐거움을 고르고 자기 수입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 자신의 일이며, 그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림 1〉 가상의 두 지역 A·B의 주류 관련 사망률 변화



* 'A 지역'은 3년 차부터 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 처벌한 곳이고, 'B 지역'은 같은 기간 주류 판매를 허용한 곳이다. 두 지역의 사망률은 전 기간 같은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금지 이후 A 지역의 사망자에는 불법으로 제조된 술로 인한 사망도 포함한다. 또 A 지역의 주류 관련 범죄 단속 건수는 금지 전의 몇 배로 늘었다. 이 그림은 문항을 위해 만든 가상의 자료이다.

[문항 1-1] 〈나〉의 관점에서 〈그림 1〉에 나타난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의 효용성을 설명하시오. (300±30자)

[문항 1-2]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를 비판하시오. (600±60자)

[문항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이란 것은 제가끔 분지복이 있어서 기수를 잘 타고 나든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 법이요, 복록을 못 타고 나든지 게으른 놈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요, 다 이렇게 마련인데, 그거야말로 공평한 천리인 것을, 됩다 불공평하다께 될 말이오? 그리고서 억지로 남의 것을 뺏어 먹자고 들다니 그놈들이 부랑당이지 무어요.

(중략)

그렇지만 시방은 그새 나라에서 엄하게 밝히고 금하고 한 덕에 많이 너끔해졌고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은 별반 없다나 봐요.

그럴 게지 글쎄. 아 해서 좋을 양이면야 나라에선들 왜 금하며 무슨 원수가 졌다고 붙잡아다가 징역을 살리나요.

좋고 유익한 것이면 나라에서 도리어 장려하고, 잘할라치면 상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활동사진이며 스모며 만자이며 또 왓쇼왓쇼랄지 세이레이 낭아시랄지 라디오 체조랄지 그런 건 다 유익한 일이니까 나라에서 설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라라는 게 무언데? 그런 걸 다 잘 분간해서 이럴 건 이러고 저럴 건 저러라고 지시하고, 그 덕에 백성들은 제각기 제 분수대로 편안히 살도록 애써 주는 게 나라 아니오?

(중략)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 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중략)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 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내 이상이며 계획은 이래서 그 십만 원짜리 큰부자가 바로 내다뵈고, 그리로 난 길이 환하게 트이고 해서 나는 시방 열심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글쎄 그 미쳐 살미 든 놈들이 세상 망쳐 버릴 사회주의를 하러 드니, 내가 소름이 끼칠 게 아니라구요?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세상이 망해서 뒤집히면 그래 나는 어쩌란 말인고? 아무것도 다 허사가 될 테니 그런 억울할 데가 있더람?

* 다이쇼: 가게 주인을 이르는 일본말.
* 내지(內地): 일제 강점기에 일본 본토를 이르던 말.
* 국어: 여기서는 당시의 일본어를 가리킨다.
* 죄선: '조선'을 이르는 말.

〈나〉 아테나이인들은 자국 함선 30척과 키오스 함선 6척, 레스보스 함선 2척, 아테나이 중무장 보병 1,600명과 궁수 300명, 기마 궁수 20명, 그리고 동맹국과 섬 주민들에서 모은 중무장 보병 약 1,500명을 이끌고 멜로스섬으로 원정을 떠났다. 멜로스인들은 라케다이몬의 식민지 주민으로, 다른 섬 주민들처럼 아테나이에 복종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며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으나, 아테나이인들이 무력을 써서 그들의 땅을 약탈하자 드러내 놓고 적대하게 되었다. 아테나이의 장군들은 그 땅에 진을 치고, 땅을 해치기 전에 먼저 사절을 보내 협상하게 했다. 멜로스인들은 사절을 민회 앞에 세우지 않고 관리들과 소수의 유력자 앞에서만 용건을 말하게 했다. 이에 아테나이 사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럴듯한 핑계를 늘어놓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를 물리쳤으니 제국을 가질 권리가 있다거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금 공격한다는 식의 긴 연설은, 믿기지도 않을 것이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도 라케다이몬의 식민지이면서 그들 편에 서지 않았다거나 우리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말로 우리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겨냥하십시오. 여러분도 우리만큼 잘 알듯이, 세

상사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한 자들 사이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하는 것을 당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제국의 이익을 위해 여기 왔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 없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서로에게 좋도록 여러분이 보존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악을 겪기 전에 복종하는 이득을 얻고, 우리는 여러분을 멸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적이 아닌 친구로 남겠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대보다 여러분의 우정이 우리 속국들에게는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적대는 우리가 강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섬 주민인 데다 다른 이들보다 약한 여러분이 바다의 지배자를 따돌리는 일이 없어야, 우리는 제국을 넓힐 뿐 아니라 안전도 얻게 됩니다. … 〈중략〉 … 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기로,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로, 본성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누구든 힘이 닿는 곳에서는 지배합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처음 만든 것도, 처음 따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있던 이 법칙을 물려받았고, 영원히 남을 것으로 물려줄 것이며, 다만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이든 다른 누구든 우리와 같은 힘을 가졌다면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 힘에 의한 지배는 언제나 자신을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질서로 꾸민다. 지배하는 쪽은 '질서'와 '평화'와 '보호'를 말하지만, 그 질서는 지배받는 이들의 동의가 아니라 힘의 격차 위에 서 있다. 지배하는 쪽이 내세우는 '공동의 이익'은 대개 지배하는 쪽이 정한 이익이며,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지를 지배받는 이들이 스스로 말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군에 맞선 브리타니아 북부 부족 지도자의 입을 빌려 이렇게 썼다. "약탈하고 학살하고 빼앗는 것을 그들은 거짓 이름으로 통치라 부르고, 황무지를 만들어 놓고는 평화라 부른다."

지배가 오래 이어지면 지배받는 사람들은 차츰 지배하는 쪽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공동체를 평가하게 된다. 바깥에서 들어온 기준이 안의 기준이 되면, 지배는 더 이상 강요로 느껴지지 않고 스스로 고른 길처럼 경험된다. 그러나 그 기준을 따라 얻은 자리는 기준을 정한 쪽의 호의에 기대고 있으므로 언제든 거두어질 수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약하게 만든다. 지배받는 이들은 서로를 함께 처지를 견디는 이웃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로 보게 되기 쉽다.

한 공동체의 자율이란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앞날을 정하는 능력이다. 지배는 이 판단의 자리를 바깥의 힘으로 옮겨 놓는다. 지배받는 쪽에게도 선택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지는 지배하는 쪽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래서 지배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을 때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둘 때 더 깊고 오래간다. 지배가 길어질수록 지배는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는 상식이 된다.

정의를 묻지 않는 질서는 강자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힘만이 옳고 그름을 정한다면, 힘의 관계가 바뀌는 순간 어제의 강자는 자신을 지켜 줄 어떤 원칙도 내세울 수 없다. 힘으로 눌린 사람들의 원한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며, 지배하는 쪽은 그 원한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지배의 비용은 이처럼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치러진다. 빼앗긴 말과 이름, 스스로를 낮추게 된 마음, 서로 믿지 못하게 된 이웃이 그 비용이다.

[문항 2-1] 〈가〉의 '나'와 〈나〉의 아테나이 사절이 지배를 바라보는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문항 2-2] 〈다〉를 활용해 〈가〉와 〈나〉에 나타난 지배 정당화의 논리를 비판하시오. (600±60자)

〈끝〉